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득염 전남대 교수

올해에도 어김없이 풍성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빠른 추석이 지나고 추수를 하는가 하였더니 단풍이 들고,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탓일까? 그냥 일상에 빠져 달리기만 하였던 예전과는 달리 물 가운데 웬지 허전하고 가슴 답답하다.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되돌아보니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시작한 지 벌써 60년이 되었다. 환희와 고뇌가 함께 하였고, 성공과 좌절이 반복되었다. 신비로운 생명체로 태어나 신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원하지도 않았던 삶이 이곳에 던져졌고, 목적지도 모르는 종착역을 향해 길고 긴 여정을 살아온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인들이 무언가 의미 있는 세월의 절점들을 만들어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 같다. 70세의 고희(古稀), 77세의 희수(喜壽), 80세의 산수(象壽), 88

인생이라는 긴 여행

세의 미수(米壽), 90세의 졸수(卒壽), 99세의 백수(白壽), 100세의 천수(天壽)라는 뜻이 주는 의미가 무겁다. 인생도 여행처럼 출발했으니 언젠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섭리일텐데 여러식게도 무언가 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여름, 이름하여 회갑여행을 아내와 함께 다녀왔다. 평소애 가고 싶은 곳을 속의 하던 중 서유럽의 박물관이 있는 대도시를 가자는 데 동의하고, 10여 일 만에 여기저기를 주막간산격으로 잠만 찢고 다녀왔다. 뒤늦게 사진을 정리하며 여행지를 되돌아보니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여기를 또 갈까 하는 생각이 아쉬운 느낌도 든다. 여행 자체가 좋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그냥 허둥지둥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차분히 보고 느끼고 율만큼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닐까.

알람드 보통은 '여행은 생각의 산파'라고 하였다. 비행기나 배, 기차보다 대화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머릿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유도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어려운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에 따라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

빅토르 위고는 여행이란 지극히 아름답고

너무 커서 좁은 시야를 벗어나 버리는 어떤 것이라 하였다. 여행은 새로운 것에 눈을 뜨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의미를 준다. 행복을 찾는 일이 우리의 삶이라면 여행만큼 역동적으로 풍부하게 드러내 준 것은 없다.

일상으로의 벗어남, 만남과 헤어짐, 현실과 로망, 새로움에 대한 열망, 일과 생존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로 여행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자주 나타나는 문제는 기대와 현실의 관계와 간극이다.

여행할 장소에 대한 조연은 어디에나 널려 있지만 우리가 가야하는 이유와 가는 방법, 특히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술한 문제와 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조언들이 있지만 어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가? 모두 자신의 몫으로 던져진다.

여행을 위해 몇 권의 책을 보았다. 최성운의 '잊지 못할 30일간의 유럽예술기행'이라는 도전적인 책은 미술관과 예술작품을 연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受胎告知)가 있는 미술관을 알게 되고, 유럽 최고의 미술관을 느끼게 되었다.

설혜심 교수의 '그랜드투어'는 여행의 의미를 알게 하는 귀한 자료였다. 최초의 여행은 정복자들의 전쟁이었고, 무역을 위하여

동서양을 건너는 모험도 있었다. 서양역사에서 최초의 여행자는 그리스인 헤로도토스이다. 그는 발길 닿는 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본 것과 들은 이야기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여행에서 얻은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라는 책을 씀으로써 '역사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었다 한다.

또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과 로마,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등의 성지를 속죄의 차원에서 순례여행 하였다. 특히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여행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에 콤플렉스를 느껴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엘리트교육의 최종단계였다.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영국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 보내지 않고, 곧 외국여행을 시키는데 대단히 발전되어 귀족한다고 여행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런데 우리네 청년들은 어떨까. 취업을 위해 자신의 스펙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여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도 여행의 참 의미를 새겨 또 다른 여행에 도전해보아야 할 때다. 실크로드를 걸고, 차마고도를 넘어보며, 히말라야 계곡을 트래킹 해본 자가 영어를 잘하는 자보다 더 창의적 사고를 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잠재적 능력이 있지 않을까?

아프리카에 봉사여행을 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평화운동 여행을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위해 진정 의미 있는 준비가 아닐까.

의료칼럼



김용상 노대우리치과의원 원장

시린 치아의 원인과 치료

으로 시리다며 병원을 찾아왔다. 검진결과 이 여성은 정상적인 치아를 가지고 있고 심한 충치도 없었으며 방사선소견에도 이상이 없었다. 다만 치아 잇몸 일부가 약간 퇴축(내려가는 현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몇년 전 출산 후 이 같은 증상이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성인 여성은 대부분 잇몸 두께가 얇고, 따라서 딱딱한 칫솔모의 자극에도 쉽게 잇몸이 내려간다. 특히 임신 전후 호르몬 변화가 극심하고, 거기에 부적절한 칫솔질까지 더해진다면 임신성 치은염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곧 치은 퇴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찬물에도 시린 증상을 심하게 느끼고, 스크링과 같은 치과 치료에도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물론 예방이 중요하며, 부드러운 칫솔과 마모도가 적은 치약이나 시린 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심한 경우에는 시린 이에 쓰는 약물을 바르거나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한다.

두 번째 사례는 40대 후반 남성으로 위아래턱 어금니 부분의 시린 증상이 있었다.

뾰뾰한 칫솔모를 쓰는 이 남성은 자전거동 호흡 회원으로 자주 자전거를 탔으며, 양쪽 어금니 부위 잇몸 쪽에 다발성으로 치아 마모증상이 있었다.

이러한 마모 증상은 치아의 과도한 잘못된 칫솔질에 의해 치아의 잇몸 부분이 패이는 현상으로, 때때로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운동선수에게 심하게 나타난다. 마모된 부분의 시린 증상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신경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접착이 가능한 GIC나 레진 치료를 하며, 이 약물기나 이 같이가 심한 경우는 교합조정이나 스피린트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40대 초반의 한 남성으로, 치아의 미세한 균열로 인해 이가 시린 경우가. 아래쪽 턱 임플란트 주변이 시큰한 증상이 있어 찾은 이 남성은 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되돌아갔으나 2주 뒤 씹을 때 놀랄 정도의 통증과 두통까지 생겼으며 다시 병원을 찾았다. 살펴본 결과 이 남성의 위쪽

작은 어금니에 미세한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임시 치아를 만들어 신경치료를 시행했다니 증상이 사라졌다. 대부분 시린 이 환자가 통증 부위를 착각하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이기도 하다.

시린 이는 초기 씹을 때 증상만 나타나 잇몸 질환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는데, 시린 이의 경우 시간이 지남수록 씹을 때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고 심한 경우는 두통까지 수반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방치할 경우 치아가 반으로 쪼개져 발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증상이 심해지면 신경치료와 함께 임시치아를 하고 증상 여부를 판단한 뒤 최종적으로는 보철 치료를 시행한다. 이 경우는 마주보는 치아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 교합조정도 필요하게 된다. 이를 방치하거나 보철 치료를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증상 초기에 바로 치과를 찾는 것이 고통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社說

평생교육 열풍에도 정보 제공 부실하다니

평생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강좌에 종년 주부나 직장인, 은퇴한 시니어, 노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에는 현재 200여 개 기관이 한해 9000개에 이르는 평생교육 강좌를 열고 있다. 수강생만 놓고 보면 지역인구의 10%가 매년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강좌는 노래나 요가, 스포츠댄스 등은 물론이고 컴퓨터, 영어를 비롯해 창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 같은 현상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살아있는 10명 중 4명이 98세까지 살 것이라는 기대 수명 예측까지 나온 상황에서, 늙어서 쉬는 인생의 패러다임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미 노년층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트렌드를 익혀야 남은 생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정보 제공이 부실하고,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먼저 강좌는 많지만 어느 곳에서도 정확한 강좌 정보를 알 수 없는 점이 많다. 대학은 대학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지자체 및 기업, 민간 등 다수의 기관들이 제각각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강좌라도 기관마다 수준에 차이가 있어 혼란스럽고, 연계성이나 체계성도 없어 선택시 불편이 크다. 또한 광주에는 지난 4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했지만 예산이 거의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전남엔 아직 평생교육진흥원조차 없는 상태다.

따라서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을 조율하고, 강좌의 정보를 종합·분석해 효율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절실하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법 '관행양식' 엄벌만이 능사 아니다

완도지역에서 관행적으로 '불법' 매생이 양식을 해오던 어민들이 무더기로 처벌 위기에 내몰렸다고 한다. 허가면적보다 넓은 지역에서 양식을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인데,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완도해양경찰은 지난 29일 허가받은 공동면적장 외의 지역에서 매생이를 불법 양식한 혐의로 어민 22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불법 매생이 양식으로 소득을 챙겨온 사실을 일부 확인한 상태로, 이대로라면 38세 대 68명이 전부인 조그만 어촌마을의 3분의 1가량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완도군의 허가 규역을 대상으로 양식면적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고, 한 마을 주민이 불법양식 구역(9ha) 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경찰은 불법양식 사실이 일부 확인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물론 불법사실에 대한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 하지만 영세어민들인 이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3~4개월 매생이 양식으로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벌금으로 내야만 한다. 또 아쉬운 점은 법적조치 전에 관계기관에서 먼저 수십 년간 관행이 돼온 양식 형태 개선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와 충분한 제도·홍보가 우선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생계에 빚만 늘어나는 약소환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현실을 염려한 법적 자태로 단죄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에 다름이 없다. 지난 3월 법원이 선처한 굴절질 무단폐기 사건은 법의 관용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사법당국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관행양식 어민들도 반성을 해야 한다. 어장 보호 및 뱀길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양식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일까. 미인에 대한 개인의 취향과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세계 3대 미인으로는 오드리 헵번, 엘리자베스 테일러, 율리야 하세가 꼽힌다. 여기에 브룩 윌즈를 꼽는 이들도 있다.

특히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은 청초하면서 단아하고 눈빛에 따라 쉼시함까지 갖든 모습으로 만인의 연인으로 불리웠다. 또 그녀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인류애를 실천하며,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과 아픔을 함께 나눠 내면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송받았다.

기품과 고급스러운 매력으로 어필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남자들의 워너비 1위로 칭송의 대명사인 율리야 하세 등은 시대를 불문하고 최고의 미인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태희와 송혜교, 한가인이 3대 미녀로 꼽힌다. 조사기관에 따라 의견이 있고, 순위도 다르지만 김태희는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얼굴에 대한 추구는 비단 성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인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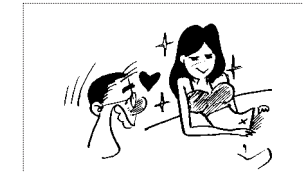
본성이 아닌가 싶다. 과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람들이 미인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이들 역시 아름다운 여성을 더 신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해롭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이고르바 스킨자이 프 박사팀이 시행한 연구에서 아이들은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성인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에서 4~5세 아동 32명을 대상으로 18~29세 백인 여성 12명의 사진을 보여 주고 선택하는 실험이 진행됐다. 아이들에게 누가 봐도 미녀와 추녀로 구분되는 두 그룹을 나누고, 전혀 생소한 사물을 보여준 뒤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고 물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아이들이 미인인 율리야 하세 등을 얼굴이 아름다운 여성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답했다.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드리 헵번의 미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아름다운 아이들의 아픔을 함께 한 따뜻한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 아닐까.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미녀가 좋아



기고



김형주 광주김치박물관 학예사

광주 원도심에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하자

화점과 마트의 개점 등 급격한 경제환경적 변동요인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나마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와 비엔날레 현장전시무대의 설치 같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시민들의 관심과 내방이라는 상당한 효과를 얻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요원한 상태이다.

계림동, 풍향동, 대인동, 동명동 등의 100여 년 전에 형성된 광주 원도심지역은 오늘의 광주발전엔 있게 한 모태이며 뿌리라 할 수 있는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삶터이다. 하지만 역사적이게도 이 일대는 화려한 과거의 영화를 뒤로한 채 점차 낙후지역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 뉴스에서 70~80년대만 해도 수십 곳에 이르던 계림동 일대의 한택방들이 고객주소로 인한 극심한 운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하면서 이제는 4~5개소만 남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살림살이가 곤궁하던 시절에는 고서점을 돌면서 쓸 만한 교과서와 참고서를 구비하고, 전년도 참고서는 깨끗이 사용한 후 퇴짜야 응돈에 보태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마뜩지 않은 상황들과 마주치면서 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퍼뜩 스쳐 지나갔다. 사라져가는 광주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켜나가면서 지역내외 관광객들 모두에게 기묘한 문화자원을 도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예술의 거리처럼 단일한 테마의 가로 몇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가칭 '빛고을 마실터'와 같은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나름의 조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3~4개 정도의 가로를 범위로 하여 한 나절 또는 하루의 시간을 보낼 정도의 적정 규모를 설정한다. 종합안내소, 삼지 공원과 휴식용도의 정자, 어린이전통놀이시설, 떡메치기 코너가 있는 풍물장터 등의 편의시설 구비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적인 문화의 거리마다 아담한 '전통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국악, 서예, 다도, 전통 춤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특색 관광객을 위한 주말단기과정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동사무소 주민센터마다 장구교실, 스포츠댄스 등 갖가지 문화예술

체육 강좌를 백화점식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주민센터가 내실이 빈약한 운영상태임을 감안할 때, 개설과목과 지역을 적절히 통합하면 전통문화의 집에 투입할 재원과 인력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지관광객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는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탈춤, 북춤, 씻김굿, 다시래기, 대금연주, 가야금산조 등 최소 월 1회 이상의 문화 난장을 펼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호남검무, 진도북춤, 강령탈춤 등 지역에서 전통문화 보존계승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예능보유자와 전수자들에게 더 많은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장르의 전통문화예술이 균형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광주의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정비에 의한 주거생활환경의 획기적인 정비효과와 고양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문화자원의 개발과 발굴을 통하여 도시이미지 제고와 외지관광객의 유입규모의 대폭 증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시·군 인력지원센터 만들어 일손부족 해소

가을걷이로 엄청 바쁜 농번기이지만 농촌은 지금 인력난이 보통 아니다.

농촌의 고령화예다가 인구는 날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농촌지역에서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져 매년 일감은 상승하고 있다. 지금 웬만한 하루 일당은 남자가 하루에 7, 8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바쁠 때는 10만 원까지 받는다. 그렇다고 외국인이라도 쉽게 배정받는다

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주말에는 온 가족이 시골로 내려가 아버지께서 일구는 밭에서 몇 나락을 수확했다. 자식들이라도 바쁠 때 일손을 거들지 않으면 그게 논밭에서 썩을 판이다.

도시의 희망근로사업도 농촌에 일자리 창출효과보다 오히려 농촌농업인력이 농촌지역 도로사업이나 환경미화 같은 희망근로사

업에 동원돼 농촌 인력 부족현상을 부추기는 엉뚱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또한 도시인근 농가의 경우 노동인력을 비교적 낮은 인건비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외딴 농업지의 경우 타지역이나 먼 도시에서 인력을 별도로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로 일일이 데려오고 일이 끝나면 또 먼 거리를 데려다 줘야 하니 도무지 무엇 하나 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

그래서 한가지 아이디어라면 전라남북도 농촌의 시, 군 단위로 인력지원센터를 세우

거나 농업인력 은행 같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도시에서 농업노동인력을 모집하는 농업인력 운영회사를 지자체에서 만들고 운영해 줘면 한다. 이렇게 설립된 운영회사는 또다시 시, 군 단위로 인력지원센터를 하부조직으로 설치해 각지역에 적절히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런 조직을 운영해주시기만 한다면 농촌은 농번기 때 작물이 논밭에서 썩어나가는데 인력을 못 구해 발만 동동 두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니윤성·광주시 남구 봉선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1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매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00-55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